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10. 20 ~ 2024. 11. 9 제307호

한국교회,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동참 호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기념주일이인 10월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 등 국가와 교회의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의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여기에 예장 합동, 통합, 백석, 고신, 대신, 합신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9월 정기총회에서 큰 기도의회에 참여하기를 결의하고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

회 원로),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등이 이번 큰 기도의회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영상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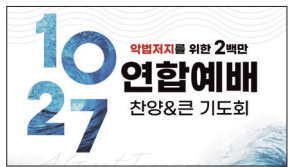
먼저 류응렬 목사는 "지금 미국은 '젠더 플루이드'라는 말처럼 오늘은 남성 내일은 여성 심지어 다른 동물의 성을 가질 수 있다 주장하는 이런 시기가 이미 현실화됐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이번 10월 27일에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막아서 대한민국이 선

교에 주축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며 "10월 27일 다 모여서 이 땅을 바꾸고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기성 목사는 "한국교회 10월 27일 연합집회는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걱정하는 절박함에서 모이자는 집회"라며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안의 시급함과 절박함을 분명하게 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최경희 센터장 (지오신그대로 여성마약중독재활센터)

“마약 중독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환자는 712명 정도, 그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 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마약 중독자 규모는 이보다 30배가 많은 8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2022년 마약 중독 치료 환자는 712명 정도, 그나마 마약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은 전국에서 2곳뿐이다. 이런 상황에 여성을 위한 '지오신그대로 여성마약중독재활센터'가 최근 개소했다. 한때 마약 중독에서 어려

움을 겪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최경희 센터장은 이 센터를 개설, 중독 치유 전문가로서 예배와 기도로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고 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90)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바벨의 사건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바빌론'이라고도 불리는 바벨은 교만한 사람들의 '종교적 노력'에 대한 예화로 종종 등장한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였다. 하늘에 도달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사람이 동원 가능한 모든 능력이 투입된 대단한 역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종교'라는 단어의 적절한 정의는 '하나님께 도달하려

는 사람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본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성 또한 매우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러자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교적 노력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끝나고 만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길,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즉 사람 스스로는 죄를 벗어 버릴 수가 없으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들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

는 길은 '오직 한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한다. 곧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죄의 형벌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가르쳐 준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사무엘하 14:14 KSV) 하신다고 말한다.

바벨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동원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해 탑을 쌓아 올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요란스러운 작업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아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여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창세기 11:5~6 KLB)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입증

된 사실, 곧 한 가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사람의 기술진보가 훨씬 빨라진다는 사실을 잘 아셨다. 또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아셨다. 즉 기술이 진보하고 살기가 편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해 살라는 뜻이 아니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힌두교 국가를 꿈꾸는 인도 성도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며



▶ 인도 갠지스강 앞에서 한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다. WMM 제공

인도 갠지스강 변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까지 3대가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모두 이마에 빨간 점이 찍힌 걸 보니, 힌두교 행사에 참여하고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인도는 인구의 74% 이상이 힌두교인이다. 인도에는 신이 3억 3000만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도는 다신교 국가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유일신앙은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힌두교 국가 건설을 꿈꾸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면서 28개의 인도의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개종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45% 증가했다.

3% 미만인 인도의 성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등 오히려 교세는 성장했다. 라디오 선교방송단체 더 타이드(The Tide)의 돈 쉐크(Don Shenk) 이사는 “어떤 힌두교 성직자는 전도용 라디오를 부수려다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며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건 물론 박해자들의 마음도 변화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지금도 박해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 믿음을 지키며 승전보를 전하고 있는 인도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도의 참된 행복자가 아닐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신 33:29) [GPNEWS]

나이지리아 플라니족,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보다 민간인 더 많이 살해

나이지리아에서 목동 유목민으로 알려진 플라니족과 이들과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이 4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보다 더 많은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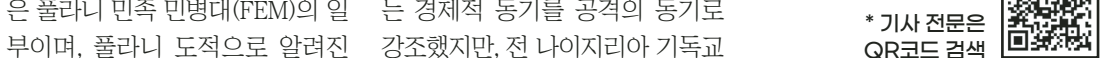
아프리카 종교 자유 관측소(ORFA)의 8월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플라니 도적’이라고 불리는 연계 테러 단체가 1만 2039명의 민간인을 살해했고, 무장 플라니족은 1만 1948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반면, 보코하람과 ISWAP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수는 3079명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 플라니족은 플라니 민족 민병대(FEM)의 일부이며, 플라니 도적으로 알려진 연계 테러 집단의 일부가 FEM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는 나이지리아의 폭력 문화에서 보코하람이나 ISWAP보다 FEM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나이지리아인보다 더 많은 폭력을 당했다. 4년간의 보고 기간 동안 살해된 민간인 3만 880명 중 기독교인은 절반이 넘는 1만 6769명이며, 무슬림은 6235명이었다. 납치된 민간인 2만 1532명 중 1만 1185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납치된 무슬림은 7899명이었다.

ORFA 보고서는 목동들이 방목을 위해 농부들의 땅을 차지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공격의 동기로 강조했지만, 전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CAN) 부회장인 유수푸 투라키(Yusufu Turaki) 목사는 플라니족과 다른 지하디스트들의 목표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파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라키 목사는 “가장 놀라운 점은 FEM이 나이지리아 민간인을 아무런 반대 없이 살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군이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추적하는 동안 대량 학살, 납치, 가족 전체에 대한 고문은 거의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 침략자들이 나이지리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日, 정자 기증 출산 여성 동성애자 증가

일본에서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해 아이를 키우는 여성 동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2일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전했다. 엘지비티(LGBT)를 지원하는 단체 코도마푸가 지난 4월부터 6월에 걸쳐 710명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할 사람(임신 중 포함)은 242명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12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제3자에 의한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고 답했다. 주쿄 대학의 카자마 타카시 교수는 “2010년대부터 제3자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방법이 여성끼리의 커플에서 주류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도 아이는 낳고 싶은 탐욕을 책망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죄에서 돌아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소서.

美, 성경 진리 나눌 수 있는 복음주의자 35%

대부분의 미국 복음주의자가 성경의 가르침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실제로 나눌 수 있는 성도는 35%였다고 라이프웨이연구소가 최근 전했다. 미국 신앙과문화연구소와 협력해 1000명의 복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공유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2%가 동의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성도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서게 하소서.

韓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6년간 1430명

한국에서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어릴 때부터 정욕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해 주시고,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주를 따르는 세대 되게 하소서. [GPNEWS]

파키스탄 무슬림 의사의 차별... 기독교인 치료 거부

파키스탄의 한 무슬림 의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의 치료를 거부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최근 전했다.

요사프 마시 길(Yousaf Masih Gill)은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파키스탄 편자브의 사히왈 시빌 병원에 입원시키고 담당 의사를 배정받았다. 그 의사는 길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인 줄 알았으면 당신의 아버지를 만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길의 아버지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다. 길과 가족들은 담당 의사를 찾아 병원 내 의사실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의사와 다른 의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 길은 아버지를 진찰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의사는 “나중에 진찰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 의사는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중요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말했다고, 이어 길의 형제인 바부 나딤(Babu Nadeem)은 수십 명과 함께 병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딤은 아버지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시빌 병원의 의사들은 그저 편견과 경멸로 응답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하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위 이후 병원의 의료 책임자는 가족을 찾아와 그들이 받은 대우에 대해 사과와 함께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GPNEWS]





조지아 의회, 성전환 금지 등 포함한 ‘가족가치법’ 서명

캅카스 지역의 조지아 의회 의장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는 지난 3일 집권 정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party)’이 발의하고 서방 국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가족의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 아젠다지와 조지아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전환을 금지하고 엘지비티(LGBTQ)의 프라이드 행진과 무지개 깃발 전시를 금지하며 결혼, 입양, 위탁 양육,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을 변경하는 의료 절차, 공식 문서에서의 성별 지정 등을 다루고 있다.

파푸아슈빌리 의장은 “오늘 조지아 헌법에 따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가족의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서명한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조지아에서는 대통령이 거



▲ 조지아 의회 앞에 모인 시민들. Civil Georgia 캡처

부해도 하원의장이 5일 안에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될 수 있다.

파푸아슈빌리는 또한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며 “이 법은 현재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생각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역사적 경

험, 수세기 동안 지속된 기독교와 조지아, 유럽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서명이 일부 서방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조지아인들은 우리의 신앙, 상식,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가족가치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파푸아슈빌리는 또한 이 법이 “대중이 가장 널리 지지하는 법안 중 하나”라면서 “2024년 5월 17일 거의 100만 명의 조지아 시민이 조지아 도시의 거리로 나와 이 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인 마이클 오플래허티(Michael O'Flaherty)는 지난달 조지아 의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초안 채택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이 법안이 엘지비티에 대한 “차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인권협약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조지아의 꿈’ 정당은 2012년 경제계 거물인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에 의해 창설됐으며, 그해 선거에서 미헤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가 이끌던 통일 국민운동을 꺾고 집권하게 됐다. 이 당은 유럽연합(EU) 및 나토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친서방 성향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를 개선할 등 현실적인 외교 정책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이 법안을 ‘반(反)LGBTQ법’이라고 명명하며 엘지비티의 권리를 심각하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채택된 법안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또 국내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조지아 의회가 ‘대통령이 거부한 반성소수자 법안에 서명했으며, EU와 인권단체들이 ‘조지아의 꿈’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성소수자 권리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GPNEWS]



“보수주의 위협하는 프랑스혁명 정신 배격해야... 한국의 축복과 소명 자각, 북한 해방 앞당겨”

기독교 청년 영역 플랫폼 ‘오리진스콜라(공동대표 류승민·최다솔)’가 진행하는 오리진스콜럽은 최근 네덜란드의 목회자이자 언론인, 정치인 등으로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중 ‘미래’ 파트를 주제로 지난 9월 24일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미국의 독립정신을 한국에 알리고자 설립된 싱크탱크인 ‘1776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강사로 참석,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칼빈주의 부흥운동의 주역인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의 사상과 이 시대에 주목해야 할 관점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 박사는 먼저 칼빈주의 기반 위에 세워진 미국 보수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을 가장 잘 적용한 정신이라며, 이 같은 미국 보수주의와 칼빈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프랑스혁명에서 비롯된 프랑스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1789년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 했으며, 이것이 프랑스 정신의 요체라고 조 박사는 밝혔다. 따라서 카이퍼는 프랑스혁명을 위협 요소로 여겨 반혁명당을 창당할 정도로 프랑스 정신을 시대의 적으로 여겼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조 박사는 “국가보다 교회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칼

빈주의이며 기독교를 빼면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데, 대한민국은 건국 이전에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으며 보수주의 가치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며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인으로 시편 33편 12



▲ 오리진스콜럽 9월 정기 모임 현장. 오리진스콜라 제공

절(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은 축복과 소명을 받은 나라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명과 책임은 자유 문명을 퍼뜨리는 것이다. 또 북한 해방이 자유 문명 확장의 돌파이며, 지성학적으로도 북한의 해방은 중국권, 회교권까지 이르는 자유 문명과 선교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통일이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의 응답시간에 한 대학원

생(문화콘텐츠 전공)은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이론과 주장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 박사는 “카이퍼도 미래를 논하면서 성령 없이는 전파하거나, 자리잡거나,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많은 영역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결국 다시 개혁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카이퍼의 말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최다솔 오리진스콜라 대표는 “유토피아 평등을 추구한 프랑스혁명의 제1원칙은 ‘하나님은 없다.’였으며, 그 평등을 이루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가진 자에 대해 잔인한 학살을 시행했고,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자유를 확보한 후, 하나님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잃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금 시대도 동일하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프랑스 정신으로 인해 촉발된 공산주의적 혁명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학살과 독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또한, 유토피아 평등을 외치며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주의의 기초인 프랑스 정신을 배격하기 위해 성경의 가치관 위에 바르

게 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GPNEWS]



美 켄터키 교회, 소도시 인구 22%가 교회 출석... 18년간 4000명 구원



미국 켄터키의 한 교회가 최근 주일 예배에서 82명이 세례를 받고 76명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CBN뉴스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켄터키주 모어헤드(Morehead)에 있는 ‘베터리아프교회(Better Life Church)’의 지난 9월 24일 예배에 17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교회는 최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날 예배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여전히 경외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의 감동은 언제나 새롭습니다!”라고 밝혔다.

다니엘 루카스(Daniel Lucas) 목사는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한 ‘영적 각성 시리즈(Awakening series)’의 마지막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교인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베터리아프교회 성도인 매튜 모필드(Matthew Mofield)는 “이번 영적 각성 시리즈는 교회의 부흥과 잃어버린 자들의 구

원을 향한 강력한 부르심이었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카스 목사에 따르면, 주일 예배에 30명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또 다른 50명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다.

루카스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believer)이 되는 첫 번째 명령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티셔츠와 수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세례를 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년 동안 베터리아프교회를 통해 4000명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루카스 목사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모어헤드로 왔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하셨다.”며 “인구 7000명이 사는 도시에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1600~1700명이 모였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GPNEWS]





“할아버지, 저는 호스텔이 너무 좋아요”

우리 공동체는 성경 묵상 시간에 잠언을 지내고 있다. 잠언 묵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이며,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게 됐다.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잠 23:26)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됐다.

한나홀 호스텔의 여자아이 중 ‘쿠쉬’라는 아이가 하곤길에 우연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다. 호스텔은 집 근처에 학교가 없거나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한 위탁 보호시설이다. 할아버지는 반가운 나머지 “쿠쉬, 할아버지랑 같이 집으로 가자.”하고 물어보시니, “할아버지, 저는 여기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여기가 좋아요. 안 갈래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함께 섬기는 사감 선생님들과 우리가 듣고 마음에 기쁨이 되며, 상급과 같은 말처럼 느껴졌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 한나홀 호스텔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백승주 선교사 제공

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무언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들어온 신입생 친구들과 다섯 명은 감사하게도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다만 아직 종종 언어 밖에 할 줄 몰라 아이들과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지만, 형들이 주변에서 통역해 주며 날마다 우르두어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다. 새학년을 맞아 새로

운 리더로 세워진 ‘드림빨’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한 이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함께 지내는 아이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친구다. 늘 형 밑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스스로 리더십이 되어 아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 우리를 기쁘게 한다. 또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를 보내며 옆치락뒤치락하는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치열

함을 볼 때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게 한다. 하지만 결국에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가시고, 또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기도하고 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 25:28)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 ‘아닐’이라는 아이가 그동안 형으로서 본이 되지 못했고, 몰래 핸드폰을 사서 영화를 보려고 했던 죄와, 게을렀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보겠다고 한밤 중 찾아와 마음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조금씩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 앞에 스스로 서 나가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했다.

지난 9월 29일에는 ‘학부모 방문의 날’을 가졌다. 아이들이 적응을 잘할 때까지 두 달여 간 만나지 못했는데, 적절한 시점이 되어 부모

님들을 깜짝 서프라이즈로 초대했다.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만사를 제쳐두고 모두 모였다. 짧은 성경 암송 무대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생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온 호스텔 아이들의 가족이 모여 서로 싸운 음식을 나누고,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각 아이들의 부모 면담도 하고, 의논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마 6:33) 아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직은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지만, 아이들이 생명을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각 가정에 더 큰 기쁨을 주시리라 믿는다. [GPNEWS]

P국=백승주 선교사

독자편지

개척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복음기도신문

“여호와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비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시 33:18~20)

복음기도신문을 접한 지는 벌써 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앞뒤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달려다가 우연히 우체통에 꽂혀 있는 복음기도신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지친 몸을 이끌고 찬찬히 신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죽음과 맞서 싸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개척교회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 열심히 전도하고 나눠 주었으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전도지 제작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교회는 전도지에 전도물품을 함께 나누어 주는데 저희 교회는 작은 종이 전도지를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번 만든 전도지는 두세 달 정도 사용하면 소진됐습니다. 그러다 프린

터 후원업체의 도움으로 주보를 대량 복사해 전도지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기도신문에 신문을 전도지 대신 사용하는 교회 기사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기도신문으로 전도하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 교회는 이 복음기도신문으로 지역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월 한 주는 주일 오후에 전 성도가 조를 이뤄 지역을 돌며 복음기도신문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규모로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교회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복음기도신문은 저와 우리 교회에 단순한 정보매체가 아닌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 이 시대 세계선교의 흐름이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슈를 알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간혹 저의 작은 세계관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특정 교단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선교 소식(간혹 선교의 역사)을 읽다 보면

지금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 이슈에 관한 기사는 저의 식견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복음기도신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민감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폴란드 한 지역 의회가 공무원들 개인 책상에 어떠한 종교적 물품도 놓지 못하게 했다는 기사를 읽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면에 아프리카 어느 종족은 예수를 믿는 것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복음은 핍박을 당하지만 또한 이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영혼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귀한 간증을 읽을 때마다 무더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만남이었던 복음기도신문이 교회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지가 되어 있고 간혹 무더지는 복음과 선교의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영적 도구가 되어



▲ 복음기도신문을 접는 성도들. 김기명 목사 제공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은 개척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추수꾼을 부르십니다. 복음의 열정 속에 이 귀한 복음의 소식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GPNEWS]

김기명 목사(목자교회)

복음의 능력

죄가 제거된 마음의 기쁨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비교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는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가난하면 어떤가?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몸이 좀 아프면 어떤가? 당신의 죄가 씻음을 받았는데 곧 죽는다면 어떤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사망의 가시가 뺏혔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라고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최상의 이유를 알고 있다. “평안이라는 꽃을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존 번연의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꽃이 ‘죄의 용서’라는 꽃밭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자라겠는가? 죄를 지니고 있는 마음은 무겁기가 그 지없으나 죄가 제거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나는 죄책감이라는 양심의 짐을 짊어지느니 차라리 육신의 고통을 견디는 편을 택하겠다. [GPNEWS]

‘네 주께 굴복하라’
(C.H. 스펔전)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10)

부활의 십자가 복음에 부딪혔는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 드렸던 헌신의 결단이 언제 있었는가? 부활의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부딪히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를 주장하실 수 있는 변화된 성도, 변화된 성직자, 변화된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

로마서 14장 7~9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거둔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현저한 변화가 나와 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

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7-9)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목적인데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헌신한 사람이라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는가. 너희는 재벌 아들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우리의 심

령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죽은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신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는가? 인간은 자기를 숭배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꼈던 옛 자아가 해결된 사람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 복음이 아니면 옛 자아를 처리할 길이 없다. 그 옛 자아인 나에 대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다.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우리 심령을 자극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부추긴다. 드라마, 노래, 예술, 문화 등 모든 세상의 것은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내 옛 자아를 추구하는 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아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독하게 자아를 사랑하던 자가 바뀌면 이렇게 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벤전 1:8-9) (2018년 9월) <계속> [GN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복음기도신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1. 삼성초대교회 부교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사역자 등 무관 급여; 280만 기준-근무시간따라 조정) - 삼성연합의원 원목 겸임
2. 간호조무사 (경력자 우선 채용, 급여 280만)
3. 연수원 관리소장 (경력자 우선 채용, 급여 300만)

문의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010-8528-3217
속식·근무 일 조정 가능합니다 ☎ 010-3705-9188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기계면 용기리 820



“판단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예수생명으로 예수교회로 살고 싶다. 오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면서도 직분을 받고 연륜이 쌓이니까 다 아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문제가 없는 척 하면서 살았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에 여거지기 해매며 갈등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주님의 은혜로 2015년 복음학교에서



일러스트=고은선

다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하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한 강의를 통해 주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다시 듣게 됐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줄줄 외운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실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고 설명해 해도 내게 실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게는 구원은 없다는 말씀에 공감했다.

사실 나는 가까운 지체와의 관계에서 나의 많은 기

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옳음으로 정죄하며 결국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내가 참으로 한심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말씀 앞에 설수록 주님이 나를 다뤄가 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여기고 드리며 신뢰하는 일들이 반복됐고,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기준이 날뛰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게 하셨다. 주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신다. 내 감정과 느낌과 열심의 끝을 내려놓고 죽음으로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상황을 그저 믿으라고 하신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이다.

이제는 나를 만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 지체의 모습을 보거나, 사랑하는 게 잘 안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다. 관계 안에서 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 관계를 이끌어가신다. 소망 없는 내게서 눈을 들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 남는 자 김혜신 마리아로 순종을 드린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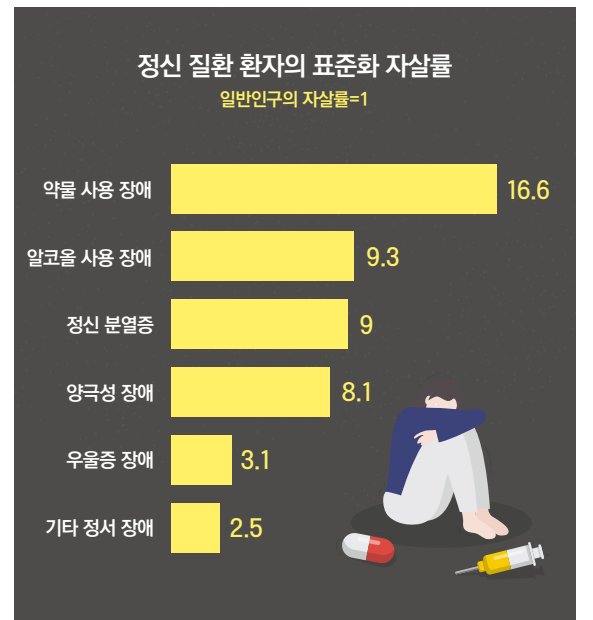
김혜신

데이터로 보는 한국



마약 등 약물 사용자 자살률... 일반인의 16배

우리나라의 마약 등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 이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발표한 을지대 예방의학교실 임지선 교수팀의 ‘정신질환 환자의 자살률과 자살위험이 높은 하위그룹: 한국 전국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약물 사용 장애 환자의 표준화 자살률은 16.6으로 나타났다. 약물 사용 장애는 아편류, 대마초, 진정제나 수면제, 코카인, 각성제, 환각제 등이 포함된다. 다른 정신 질환의 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 9.3이었으며 정신 분열증은 9.0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극성 장애는 8.1, 우울증 장애는 3.1, 기타 정서 장애는 2.5로 나타났다.



<자료: 을지대 예방의학교실 임지선 교수팀>

기도 |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에 취해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약이 아닌 성령에 충만한 자 되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예수교회로 회복하십시오. [GPNE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남북 육로 끊고 요새화 공사... 합참, “내부 인원 외부 차단 의도”로 추정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최근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쪽 국경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두 국가론’을 언급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상징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의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 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



Pixabay

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외부 유

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도 |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바, 북부 지방은 북한이 불법 점유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북한 정권의 경의선 철

거 작업은 자신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하며 무기를 개발하고 접경지역의 남북 연계 조건들을 분리해 내고 있는 행태일 뿐, 일방적인 고군분투일 뿐이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지금도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복음 통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안식이 북한에 필요하다. 북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악한 자의 권세가 무너지고 북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GPNEWS]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비욘드 유토피아 (Beyond Utopia)

우리의 비욘드 유토피아, 영원한 본향



다큐멘터리 | 미국 | 매들린 개빈 | 115분 | 12세 관람가 | 2024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슬슬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배우기 시작할 즈음 선생님은 칠판에 엠펬시(empathy), 심파시(symathy)라는 단어를 적으셨다. 뭔가 비슷한

스펠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음하기가 어려웠던 이 단어들은 사진을 찾아보면 공감하다(empathy)와 동정하다(symathy)로 적혀 있었다. 선생님은 공감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주는 거고 동정은 그저 불쌍하게 여기며 그 상황 혹은 그 사람과 나는 별개로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다. 공감과 동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싶었다.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닌 나는 저학년 때 반공 학습을 철저히 받게 받았다. 그런 나에게 북한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언제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무시무시한 타도 대상이었다. 시대는 급변하고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그러다 먹을 게 없어 중국까지 흘러 들어온 꽃제비에

대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비참한 실상이 드러나고 처음으로 그들이 불쌍했다. 불쌍했지만 그저 동정했을 뿐 내 일이 아닌 철저히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미국 독립영화계에서 주목받는 매들린 개빈(Madeleine Gavin)이라는 미국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이다. 내용은 단순하다. 20년 전 북한에서 탈출한 이현서라는 여자의 내레이션이 전체 극을 끌어가며 자신의 경험과 북한의 상황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5명의 일가족과 북한에 남겨 둔 아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는 엄마의 이야기가 겹쳐 진행된다. 세뇌, 영어로는 브레인워시(brainwash)된 사람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북한의 비참한 실상이 가감 없이 펼쳐진다. 세뇌로 인해 뇌가 씻겨버린 사람들, 철석같이 북한을 유토피아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서로서로 철저히 감시하는 숨 막히는 사회구조,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가난, 공포스런 통제 아래 사람들은 생명을 건 탈출을 감행한다. 여러 통로로 접한 북한 외의 세상을 마주한 이들은 더욱 그곳에서 탈출하길 처절히 갈망한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특별히 일가족 5명을 중국에서부터 동행한 김성은 목사의 위험천만한 여정은 심장이 쪼그라들 만큼 조마조마했다. 생명을 걸고 온몸에 진이 빠지도록 정글을 헤매며 사투를 벌이는 탈북민들을 다시 사기 치는 중간 브로커들, 인생은 참으로 쓸쓸하고 녹록지 않았다.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인 엄마 이소연 씨의 아들은 탈북에 실패하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져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일가족 5명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북한을 지상 최대의 유토피아로 알았을 때야 어쩔 수 없었지만 진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야만 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현실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자유를 철저히 억압당하는 채로 버틸 수 없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나은 나라 유토피아를 꿈꾼다.

한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한 그들의 얼굴은 진짜 유토피아를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이곳의 현실도 복음이 없다면 그들에게 또 다른 유토피아를 찾아야 하는 두려운 곳일 뿐이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비욘드 유토피아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본향이다. [GPNEWS]

최현정 선교사



청년선교 Youth Mission

“제가 다시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청년 선교사들의 생생한 좌충우돌 믿음의 순종기를 담은 [청년 선교]. 기독교인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복음과 운명을 같이한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 곳곳에서 매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달, 8월 말이었습니다. 2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배에서 제가 속하고 섬기게 될 부서를 배정받는 날이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엔젤 부서로 배정받게 되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속한 엔젤부서는 배에 사는 크루원들뿐만이 아니라 배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호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고난을 견뎌내며 말도, 탈도 많았던 잠비아를 거치고 드디어 입성한 로고스호프에서 고작 하는 것이 청소요?”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 하고, 없던 믿음까지 써보려 해봐도 도저히 저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닌데...’라는 교만한함과 실망감에 휘둘렸기에, 그 어떤 것도 부서 안에서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저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다. 일이 끝나고 나서도 쉬고 놀기보다는 공부하고 기도하며, 저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주님은 매일같이 주님을 구하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저에게 제가 이곳에서 주님께 오늘도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저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을 연약한 제 생각과 뜻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주님께 이곳에서 순종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주님을 제가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임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모 든 것이 결론이 났을 때, 저의 행동과 마음은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자세로 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나에서 산모를 위해 기도하다

저희 선교사들이 배에서만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



▲ 항해 후 도착한 가나 타코라디를 축하하는 선교사들. 우기준 제공

일에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의 부서를 잠시 떠나 외부 행사와 사역에 동참하는 ‘C-DAY’라는 아웃리치 형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C-DAY에 나갔습니다. 가나 타코라디에 위치한 바 이블클리치 학생들과 함께 현지 병원에 가서 그들에게 저희의 삶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형식의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날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한 환자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로고스호프라는 선교선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되신다면 제가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환자분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특유의 영어 발음과 북받치는 감정으로 목이 메인 상태여서, 영어가 부족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분의 기도제목을 다 알아듣지 못한 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다음 환자

분께 향했습니다. 그때 현지 바이블클리치 학생에게 아까 그 환자분의 어려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환자분은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신 산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온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고, 지금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그 환자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치면 너무 후회하고 자책할 것 같아, 저와 함께 온 바이블클리치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처음 환자분에게 가서 다시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저는 다시 그 환자분께 가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한 다음 다시 그분의 기도제목을 두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GPNEWS]

우기준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9. 20 ~ 10. 8 (가나다 순)

개인

고병문 권혜영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혜신 박경희 박신희 안민자 안석문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윤미자 이동엽 이미영 이보희 이삼연 이순희 이영옥 이종훈 이진희 이향은 장옥경 정범영 정옥영 정요한 조복형 조형광 최점욱 홍고집 홍찬일 황일문 무병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마하나임십대교회 메그노트 목사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샘물교회천천서원교회교정팀 선한목자교회 스테파니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주나임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았더라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